
안전보건교육교재

-화재예방-

2016. 12.



K I S I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TEL: 1588-8393 (代) FAX: (031)414-0725

안전보건교육일지

2019 년 12 월 일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 근로자수

교육구분

교육 과 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재준비

화재예방

교육목적

화재예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교
육
내
용

1. 소방기초상식
2. 화재 예방요령
3.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4. 소방시설 사용요령

[출처] 국민안전처 자료 중에서..

※ 교육평가 및 의견

강 사 명

비 고

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51				76			
52				77			
53				78			
54				79			
55				80			
56				81			
57				82			
58				83			
59				84			
60				85			
61				86			
62				87			
63				88			
64				89			
65				90			
66				91			
67				92			
68				93			
69				94			
70				95			
71				96			
72				97			
73				98			
74				99			
75				100			

1. 소방기초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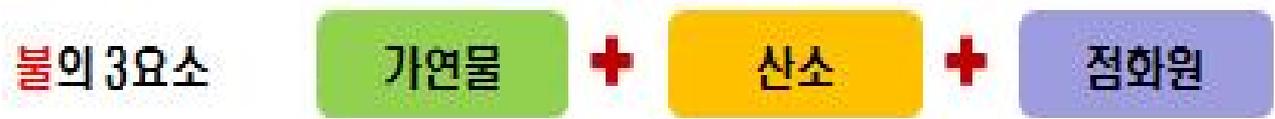
가. 불이란?



- 불이 탄다는 사실은 "연소"라는 용어로서 표기되고 있으며, 이 연소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 중에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그 결과 "강한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반응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불(연소)의 3 요소

불은 연료(가연물), 열(점화원), 산소 등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져야만 불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불의 3요소"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의 3요소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연료(가연물) : 연료란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이는 고체, 액체, 기체연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고체연료 : 연탄, 나무, 종이, 옷, 고무, 플라스틱 등
- 액체연료 : 석유, 휘발유, 알콜, 병커C유 등
- 기체연료 : 프로판가스, 메탄가스, 부탄가스 등

2) 열(점화원)

물질이 타서 불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열은 높은 열이어야 하며 그 양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냥불의 불꽃은 보통 가연물에 불을 붙이기에는 충분한 온도를 가졌으나 그 양이 적은 까닭에 통나무와 같은 큰 부피의 물체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성냥불을 동시에 가져다 댄다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통나무를 능히 태울 수 있습니다.

3) 산소(공기)

물질이 열을 받아서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며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 마시는 공기 중의 약 21%는 산소이며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가연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액체는 공기 중 산소 함량이 15% 이하로 줄어들면 불붙기 어려우며, 고체의 경우에는 6%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불은 계속 불거나 그을면서 타게 됩니다.

다. 화재의 분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진화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불길이 커져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번지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하는 것은 바람의 속도, 기압 또는 나무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질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화재는 불에 잘 타는 물체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화재(일반 화재) : A급 화재

목재, 석유류, 종이, 나무 플라스틱처럼 다 타고 난 이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이런 화재를 일반화재 또는 보통화재라 합니다.

2) 유류 화재 : B 급 화재

휘발유 또는 석유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액체는 프로판 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라 합니다.

3) 전기 화재 : C급 화재

변압기, 전기다리미, 두꺼비집 등 전기기구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4) 금속 화재 : D급 화재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의 가연성 금속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라. 불의 성장과 확산

앞에서 불의 원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단 불이 나면 불은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불꽃으로부터 되돌아온 열에 의해 재점화, 확산하여 다른 가연물질을 태우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이러한 확대 현상은 직접 물질이 화염에 접촉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열의 이동이나 불꽃(불티)이 날아가는 현상(비산), 이 두 가지 물리적인 상태가 단독 또는 중복해서 불이 진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열의 이동에 의해서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도, 대류, 복사의 사의 세 가지 작용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1) 전 도



- 열이 물질 속으로 전해져 가는 현상으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체는 기체보다 열이 잘 전달된다. 예를 들면 철사 끝을 불로 가열하면 얼마 후 다른 한쪽까지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 대류



- 액체나 기체와 같이 유체의 일부가 가열되면 그 부분이 팽창되어 밀도가 적어져 위로 올라가고 그곳에 온도가 낮은 부분의 유체가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가열된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열의 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방안에 난로를 피웠을 때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반복되어 실내가 따뜻하게 되는 현상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3) 복사



- 고열체로부터 저열체로의 열의 이동이 전도나 대류와는 달리 중간 매개물 없이 직접 열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태양열이 지상의 물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 소화의 원리

1) 가연물의 제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현장 주위의 물체를 치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며, 산불이 났을 때 주위의 나무나 풀을 잘라내는 것이나 석유난로에 연결된 호스의 안전장치를 잠그는 것은 연료를 제거하여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2) 냉각소화

불타고 있는 물체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끼얹어 열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으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흡수하는 열량은 다른 소화약제보다 10배에 가까운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화재, 전기화재, 화공약품과 같은 화재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산소의 차단

화재 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불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질식에 의한 소화라고도 하는데 부대에 담긴 모래나 담요,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산소의 공급을 막으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유류나 전기화재 시 이러한 방법으로 불을 꺼야 합니다.

2. 화재 예방요령

가. 담뱃불 화재 예방요령

1) 주요원인

-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 어른들의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발화

-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 재떨이의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2) 예방요령



-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러한 곳에는 "금연구역" 표시판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 보행 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궂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궂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 합니다.
- 불씨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약간의 물을 부어 놓도록 합니다.
-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편리하고 안전한 곳을 택하여 "흡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합니다.

나. 전기 화재 예방요령

1) 주요원인

-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 **누전에 의한 발화** :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 **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2) 예방요령

- **합선**
 - ①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합니다.

- ②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낡았거나 손상된 전선은 교체합니다.
- ③ 스위치, 분전함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④ 천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전선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 ⑤ 배선은 가능하면 보호관을 사용하고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 ⑥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 ⑦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합니다.

• **누전**

- ①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 기구는 회로를 분류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합니다.
- ② 배선의 피복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③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 **스파크**

- ① 전기 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 ② 정전 때에는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 ③ 배전반의 먼지와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합니다.
- ④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수시로 청소합니다.
- ⑤ 분전함 등 전기 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등 가연물은 두지 않습니다.

• **과부하**

- ①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합니다.
- ② 전기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③ 오랫동안 안 쓰는 가전제품을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 **과열**

- ① 사용한 전기 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외출합니다.
- ②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켜는 것은 위험합니다.
- ③ 전열기의 자동 온도조절기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④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 ⑤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 부위는 단단히 조여놓도록 합니다

다. 가스 화재 예방요령

1) 주요 원인

공급자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밸브의 오조작 • 용기교체 작업 중 누설화재 • 잔량 가스처리 및 취급미숙 • 가스충전 작업 중 누설폭발 •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 이행 • 배관내의 공기치환작업 미숙 • 용기본관실 화재(연탄 등) 사용 •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 용기보관 가스누설 • 정화 미확인으로 누설폭발 •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 가스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 성냥불로 누설확인 중 폭발 • 호스 접속불량 방치 • 조정기 분해 오조작 • 코크 조작 미숙 • 인화성물질(연탄 등) 동시 사용

2) 예방 요령

• 가스 안전 점검 요령



- 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리로 점검합니다
- ②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해 버너의 불구멍이 막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③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점화 코크와 중간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가스 안전(사용 전)

- ①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냄새로 확인합니다.
- ②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봅니다.
- ③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 ④ 가스 기구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충분히 환기시키도록 합니다.
- ⑤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빨래, 스프레이통 등)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 가스 안전(사용 중)

- ① 가스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②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절합니다.
- ③ 불완전 연소 시에는 유독성 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연료 소비량도 많아집니다.
- ④ 가능하면 자리를 뜨지 않고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 하도록 합니다.
- ⑤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 차단 장치를 자주 확인 합니다.

• 가스 안전(사용 후)

- ①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도록 합니다.
- ② 장기간 외출할 때에는 용기 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가스레인은 자주 이동하지 말고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라. 불티 화재 예방요령

1) 주요 원인

- ①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 발생
- ② 용접물체가 가열되어 주위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 ③ 모닥불, 소각장 등의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 발생

- ④ 배관의 용접/절단 시 배관의 보온재료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⑤ 용접 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

2) 예방요령



- ① 용접작업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합니다.
- ②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가연물을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합니다.
- ③ 천정 부근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④ 모닥불 등의 처리는 충분히 소화하고 재연소의 발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땅속에 완전히 묻도록 합니다.
- ⑤ 쓰레기나 문서 등을 소각할 때는 감시인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합니다.

마. 공장.작업장 화재예방요령

1) 주요 원인

-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단위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공장화재의 원인별 분석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유류, 가스, 담배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예방요령



- ①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②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 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 ③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합니다.
- ④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⑤ 화재확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시설의 단열내장재 처리와 방화구획의 설정 및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 ⑥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3.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가. 화재를 감지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눈 : 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져요.
- 귀 :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비상 벨 소리가 들려요.
- 코 :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요.
- 입 : 불이 난 것을 알게 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나. 화재신고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개통 및 사용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다. 초기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립니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씩읍니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그도록 합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됩니다.

라. 화재 대피

1)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 봅니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등 안전 관련 가정 교육 실시



화재 발생 시 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2) 연기가 많을 때 대피요령

- 연기가 있는 곳보다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 않습니다.
-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도록 합니다.

3) 폭발사고 때 대피요령

- 2차 폭발에 대비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 폭발 사고 때는 광음으로 청각을 다칠 수 있으니 귀를 막고 대피합니다.
- 질식에 대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에 주의해 대피합니다.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후에 응급조치를 합니다.
- 추가 폭발에 대비해 전기 스위치와 화기 사용 등을 금하고,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근 후 자연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4)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응법



첫째. 그 자리에 멈춰선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진다.

-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립니다.
- 불이 꺼질 때까지 바닥에서 뒹굴니다.
-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는 수건이나 담요로 덮습니다.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 준다.

4. 소방시설 사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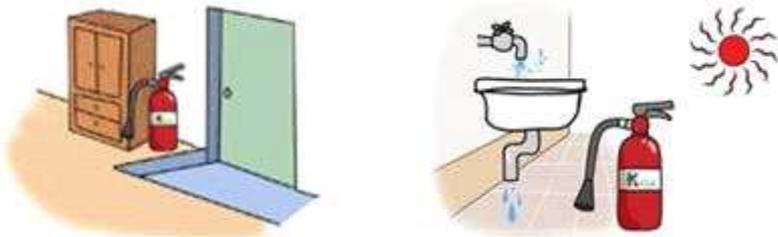
1. 소화기 사용요령

1) 소화기 사용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2) 소화기 관리 요령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 습기가 적고 건조하여 서늘한 곳에 설치합니다.
-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합니다.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충약합니다.
-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3) 소화기 비치요령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합니다.
-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합니다.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합니다.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합니다.
- 물이 달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됩니다.

2.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 2인 1조로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 함의 문짝 손잡이를 당겨 개방합니다.
- 한 사람은 소화전함의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 다른 사람은 호스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져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면 소화전 함의 개폐 밸브를 왼쪽방향(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개방합니다.(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열도록 합니다.)
-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향하여 노즐을 돌려서 물을 뿌립니다.
- 불을 다 끈 후에는 개폐 밸브를 오른쪽 방향(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그도록 합니다.(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녹색 정지스วิต치를 누르고 밸브를 잠그도록 합니다.)
- 펌프를 정지시키고, 호스를 정리하여 원위치 시킵니다.

